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‘13. 10. 2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산업부 말 바꾸기 ‘미니 외투단지’ 수도권도 지정 허용”(13.10.21, 세계)

1. 기사내용

- “산업통상자원부가 ‘미니 외국인투자단지(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)’에 대해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을 허용” 했다는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보도내용 중 “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을 허용했다”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
 - 지난 9월 26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수도권이 제안하여 낙후 지역인 수도권 접경지역에 미니외투를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논란이 있어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음
- 또한, 보도내용 중 “미니 외투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에 80% 이상이 입주해 있어야 한다는 입주율 요건이 있었지만, 5개월도 되지 않아 이 요건마저 슬그머니 삭제해 당장 경기·인천 북부 등 수도권의 미니 외투 지정이 가능케 했다”는 내용도 사실이 아님
 - 미니외투에 대한 입주율 한도 배제는 비수도권의 미니외투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이 제안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과 했으며, 수도권은 미니외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 되지 않음

※ 관련 문의

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전윤종 과장(02-2110-5361)